



## 삼원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디자인 전공 대학생 30명 총 4350만원 장학금 지급

국내 디자인 예술 및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디자인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삼원장학재단(이사장 이명우)이 지난 2월 20일 11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대학생 30명, 총 43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삼원장학재단

삼원장학재단은 국내 디자인 예술 및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디자인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서기훈 한국기초조형학회 회장(가천대학교 겸임 교수)을 비롯해 최호천 대한산업미술협회 이사장(강남대학교 겸임 교수), 강병돈 경기디자인협회 회장(용인대학교 겸임 교수), 박영원 홍익대학교 교수, 홍일양 세명대학교 교수, 이창욱 단국대학교 교수, 김석환 공주대학교 교수 등 학계 관련 주요 인사는 물론, 김기동 광진구청장, 이상욱·이연옥 ㈜삼원특수지 부회장 및 대표이사 등 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 지금까지 356명 총 3억8690만원 장학금 전달

삼원장학재단은 고급특수지 전문기업 ㈜삼원특수지 창업주인 이명우 회장이 친취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인 인력개발이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약 40년의 공직생활과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뜻에 따라, 2003년 1월 21일에 설립됐다.

2003년 8월에 각 대학 시각디자인학과 학생 및 전공자 중 유망한 인재 17명을 제1기 디자인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 이래 지금까지 약 10년에 걸쳐 매년 한차례씩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56명(대학생 295명·전문대생 61명, 총 3억8690만원)이 장학 혜택을 받았다.

삼원장학재단은 올해부터 설립 취지를 더욱 넓히고자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매년 두 차례(1학기, 2학기)로 늘리고, 장학금액도 증액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장학금 지원 사업 이외에도 디자인 학술관련 연구 및 전시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활동도 활발히 벌여 지금까지 4개 단체에 1550만원을 기부하는 등 디자인 대중화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재단은 조만간 시각(산업)디자인 전공자 총 33명(총 5000만원 지급 예정)을 대상으로 하는 12기 장학생 선발도 계획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시각 디자인 전공자로서 성적이 우수(4.5 기준 3.0이상)하고 학과장 추천을 받은 실기력이 우수하면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다. 장학생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